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채권증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증권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2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

- 신탁재산의 20% 이하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2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96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740억 원

펀드유형 모자형, 혼합형, 종류형, 추가형, 개방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15년 04월 06일)

- 클래스 A : 2015년 04월 06일
- 클래스 A-E : 2015년 04월 27일
- 클래스 C : 2015년 04월 06일
- 클래스 C-E : 2015년 04월 27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4월 27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18년 09월 12일
- 클래스 S : 2015년 04월 14일
- 클래스 S-P : 2016년 07월 05일

벤치마크 KOSPI 17% + 매경BP종합(국공채) 52%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6% + Call 5%

신탁업자 우리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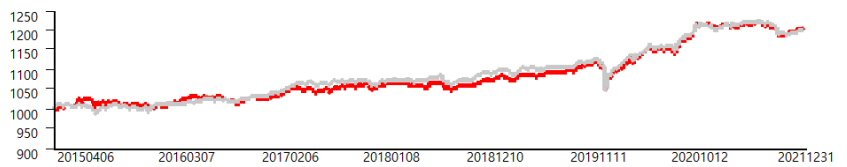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12%	0.48%	-0.99%	0.78%	8.71%	13.68%	17.69%	20.43%
클래스 A	1.05%	0.27%	-1.40%	-0.06%	6.92%	10.88%	12.89%	13.86%
클래스 A-E	1.07%	0.32%	-1.30%	0.15%	7.35%	11.56%	14.04%	15.46%
클래스 C	1.03%	0.20%	-1.55%	-0.36%	6.28%	9.89%	11.22%	11.58%
클래스 C-E	1.06%	0.28%	-1.38%	-0.01%	7.03%	11.06%	13.19%	14.32%
클래스 C-P2(연금저축)	1.06%	0.28%	-1.38%	-0.01%	7.02%	11.04%	13.17%	14.34%
클래스 C-P2(연금저축)E	1.07%	0.32%	-1.29%	0.16%	7.39%	11.62%	-	10.94%
클래스 S	1.07%	0.33%	-1.29%	0.16%	7.39%	11.61%	14.09%	15.44%
클래스 S-P	1.12%	0.48%	-0.99%	0.76%	-	-	-	4.79%
벤치마크	0.88%	-0.45%	-1.71%	0.24%	7.29%	11.72%	17.02%	19.7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판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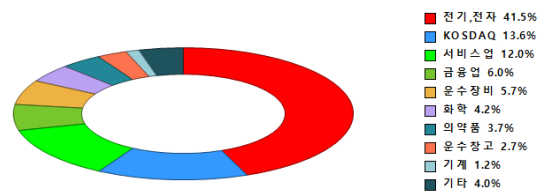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1년 12월말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주식모투자신탁 편입 비중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1년 12월말, 주식모투자신탁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2.0	현대차	운수장비	2.3
SK하이닉스	전기,전자	9.0	삼성SDI	전기,전자	2.1
NAVER	서비스업	6.0	한화솔루션	화학	1.9
삼성바이오로직스	의약품	3.2	크래프톤	서비스업	1.9
카카오	서비스업	2.3	LG전자	전기,전자	1.9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835% (판매 0.4%)
- 클래스 A-E : 총 연 0.635% (판매 0.2%)
- 클래스 C : 총 연 1.135% (판매 0.7%)
- 클래스 C-E : 총 연 0.785%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지축) : 총 연 0.785% (판매 0.35%)
- 클래스 C-P2(연금지축)E : 총 연 0.615% (판매 0.18%)
- 클래스 S : 총 연 0.635% (판매 0.2%)
- 클래스 S-P : 총 연 0.595% (판매 0.16%)

(공통사항)

운용 0.4%, 신탁 0.02%,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0.4% 이내
- 클래스A-E: 납입금액의 0.2% 이내
- 클래스 C/C-E/C-P2(연금지축):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KOSPI는 전월 대비 4.9% 상승한 2,977.65pt, KOSDAQ은 7.1% 상승한 1,033.98pt 로 마감하였습니다. 동 기간 국내 주식시장은 물가 상승 압력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 월 중 반까지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 되는 가운데 업종 전반에 걸쳐 고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중심의 업황 개선 전망이 부각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반도체, 운송, 정유 업종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의약, 화학, 인터넷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0.5원으로 전월 대비 보험세를 보였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75.21달러로 전월 대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2월 한달 간 코스피(KOSPI) 기준 국내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약2.8조원, 약 3.4조원을 순매수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제조업 모멘텀 둔화 및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서비스업 회복 기대감이 낮아지며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급병목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고 있어, 미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 및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증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또한 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운수창고, 반도체 업종이 시장대비 큰 폭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인터넷, 화학, 의약 등의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펀드에서는 반도체, 전자부품, 은행 업종의 종목 선택효과가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반면, 인터넷 업종의 배분효과가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추가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된 SK하이닉스, OLED 패널 수요 상승에 따라 LG디스플레이의 추가상승이 성과에 긍정적이었습니다. 반면, 신규 게임 성과 부진의 크래프톤, 높은 추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의 카카오킴의 추가하락이 성과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2022년 1월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등 대형업종 중심으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의 경제영향력 감소 및 공급병목 현상의 완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전기차 및 메타버스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 견조한 수출 경기 등은 국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확장 국면의 글로벌 경기, 지난 해 대비 물가 상승세의 둔화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조로의 정책 선회 등이 연초 시장 상승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종전 최고치를 상회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이동 등의 제한조치를 재차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시장에 우려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에너지 가격에 부담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큼니다. 하지만, 변이종이 나타남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백신접종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은 팬데믹 관련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또한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수요/공급 예측력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팬데믹이 완화되면 물가상승률 또한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예측을 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상황을 감안한 운용보다는 코로나19 종식의 시나리오를 염두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업종은 코로나19의 피해 업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및 수요가 좋았던 상황 속에서도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과잉공급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예상되었던 공급과잉은 예상보다 높은 수요와 예측하지 못했던 공급망 혼란으로 22년 실적에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은 금리인상, 규제 이슈로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컨텐츠, 게임 등으로 관심이 집중된 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갖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업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발 및 임상에 대한 시장이 관심이 멀어지며 오랫동안 소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시장이 관심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